

사회복지시설 탐방 ㉑ 해뜨는 마을 원장 박수일

사랑으로 실천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



가정법원 수탁교육원 해뜨는 마을은 범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년법 제4조를 적용받아 6개월에서 1년정도 머물며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다.(원인은 박수일 목사)

가정법원 수탁교육원 '해뜨는 마을(원장 박수일)'은 땅이 있어도 밭을 밟고 설 곳이 없고, 빛이 있어도 어둠의 그늘 속에서 방황해야만 하는 버려진 청소년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년법 제4조를 적용받아 6개월에서 1년정도 머물며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다.

해뜨는 마을은 포천시 관인면 중리 615번지에 위치, 1995년부터 시작된 시설로 현재 미신고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시에서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해 신고시설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해뜨는 마을에는 최대 수용인원이 100명이지만 현재 15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박수일 원장과 직원 3명, 식사 봉사 등 5명 내외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여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의정부나 경기북부지역의 범죄 청소년이 대상이 된다.

이 시설은 현재 2003년 신축한 생활관으로 건물 2층에서 입소 청소년들이 교육 및 생활을 하고 있으며, 생활관 1동을 신축중이다.

박수일(65) 목사는 법무부 전국

교회연합회 사무총장, 법무부 경 생보호 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사무총장 등 청소년 선도와 경생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 목사가 청소년범죄예방 활동을 실시 한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폭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많은 없었다"며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과 교화를 일선에서 직접 실천하는 취지로 투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뜨는 마을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80%정도가 결혼가정으로 인해 탈선한 경우로 교화나 교육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한다.

해뜨는 마을에서 원생들은 주로 종교활동이나 탁구 등 체육활동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학과수업으로는 컴퓨터교육, 검정고시 대비학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쟁프로그램으로 미술정신치료와 인성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을 채워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학과수업이나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최근 원생의 감소로 인해 축소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목사는 "설립 초창기에는 인근 교회 등에서 후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경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후원도 여의치 않아 부족한 것이 많다"며 "지역사회에 지로용지 등을 보내 후원을 독려하고 있지만, 매월 30~40만원 정도만 후원되기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지내기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뜨는 마을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을 먹이기 위한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뜨는 마을은 지역사회의 일성교육프로그램도 최근 원생의 감소로 인해 축소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목사는 "최근에는 못했지만, 농번기에 지역주민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농활도 다수 실시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주민들을 돕는 시설로 거듭나고 싶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14~20세의 청소년들이 경미한 죄로 입소하는 시설이 800여개 있는데, 해뜨는 마을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입소생들의 중국탐방이다.

박 목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한 이유는 원생들에게 견문을 넓힘으로서 경쟁과 교화에 보다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해뜨는 마을에 필요한 것은 쌀뿐만 아니라 원생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시설을 관리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박 목사는 "최근 시설과 거주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터져 시설과 원생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부족했다"며 "상담, 이발, 청소 등 다양한 봉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 : 농협 077-12-166727 (예금주 박수일)
문의 : 031-534-7566
지협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심터

햇빛과 공기와 물

햇빛과 공기와 물은 모든 생물체에게 가장 필요한 3요소이다. 이 3요소가 없으면 어떠한 생명도 유지될 수가 없다. 이 3요소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햇빛은 높은 곳에 있고 물은 낮은 곳에 있으며 공기는 어디에도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 광범한 이치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듯이 알아야 할 뜻이 내포되어 있다.

햇빛은 우리에게 이상과 같은 것이다. 이상은 항상 높아야 한다. 이상이 낮으면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상이 태양과 같이 높고 밝을 때 존재의 가치는 빛이 나는 것이다.

공기는 양심과도 같다. 공기는 어디에도 있듯이 양심은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합쳐져 생기는 마음이다. 폐쇄된 공간에서는 생물들이 살수가 없듯이 양심이 닫혀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양심이 건강해지고

생명이 건강해진다.

물은 우리에게 마음과 같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낮아야 하다가 된다. 마음은 낮아질수록 커진다. 모든 물이 흘러 바다에서 모이듯, 바다 같이 넓은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야.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모든 생명이 살게 된다. 물이 썩고 악취가 나는 것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연다는 말이다.

이렇듯 사람은 우주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이상은 높아야 하고 양심은 공평해야 하며 마음은 항상 낮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모습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태국 국방위원장, 태국군 참전 기념비 참배



태국군 참전기념비 참배 후 태국 국방위원회 방한단 일행과 포천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태국 국방위원회 방한단 일행이 지난 9일 영부문 문암리 신24-2번지에 소재한 태국군 참전기념비를 방문하고 참배했다.

이번 방문에는 태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와타나 싸나파니 장군을 비롯해 상원의원 5명과 공무원 등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태국 참전기념비'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육해공군 병력을 신속히 파견한 태국군의 위업을 기념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태국군 전몰용사 1천29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74년 10월 1일 건립됐다.

이 기념비 동쪽에는 양국의 우의를 기념하기 위해 태국 정부에서 자국 고유의 사인 건축양식으로 직접 건립해 1995년 9월 2일 포천시

에 증정한 누각이 자리해 있다. 6.25 전쟁 당시 지상군 1개 대대에 소재한 태국군 참전기념비를 방문하고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난 세기 한국을 위해 태국의 젊은 이들이 값진 희생을 한 사실을 강조하고 이제 문화, 예술, 경제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포천시가 보은의 기회를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협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항상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포천우체국 開局 100주년

포천우체국(국장 이원규)이 오는 10일로 100주년을 맞이한다.

1905년 8월 10일 '포천임시우편소'를 개소하면서 우정업무의 토대를 마련하여, 현재는 소속기관으로 12개 우체국과 3개의 출장소, 2개 우편취급소에서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및 기타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천지역의 생활우체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포천우체국은 지금까지 고유의 업무인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물론 포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신공학과, 육포, 당면, 홍삼, 버섯 등 8개 업체의 상품을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국에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및 소년 소녀가장, 불우아동, 장애인에 대상으로 무료보급 가입(최고 1천만원)등 매년 5명에게 다양한 공익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애증진과 생활안정에도 기여해 왔다.

이원규 포천우체국장은 100년 세



포천우체국이 오는 10일로 10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100년 전 청사모습이 이채롭다.

일동안 한결같이 포천시민들께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며, 이번 개국 100주년을 맞아 고객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8월 10일 첫순님 및 100번째로 친구를 방문한 고객에게 특별 감사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하고, 이날 포천우체국을 방문하는 전 고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우편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품질향상과 함께 직원의 전문성 강화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희수 상병 軍에서 뺀 44kg 입대전 118kg에서 74kg로 체중감량



입대전 118kg(좌)과 현재 77kg(우)의 신희수 상병.

대'에 편승되어 살을 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얻게 됐고 다시 체중감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통해 같은 소대 병사들보다 2배 넘는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 훈련소 입소 당시 2바퀴만 뛰어도 힘들던 연병장을 뺄소를 앞두고 10바퀴 넘게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되었고 몸무게 또한 믿기지 않는 99.5kg이던 두자리 수치를 갖게 됐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신 상병은 70kg이 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가 현재도 '체중감량'에 도전 중이다. 그의 몸무게는 현재 74kg.

신 상병은 자대에 와서도 하루에 15km씩 꾸준한 필름을 했다. 특히 정시 정량의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은 물론 동료들의 관심과 응원은 신 상병의 체중감량에 큰 힘이 됐다.

신 상병은 "군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신체와 무엇보다도 하반 판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지협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육군 8사단에 44kg를 감량한 병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무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신희수 상병(23)이 바로 그 주인공. 신 상병이 처음 체중감량을 시작한 것은 기특하게도 군대에 가기 위해서였다. 신 상병은 120kg이던 몸무게를 보름간의 단식형 생활에서 108kg로 만들어 현역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체중감량을 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돼 훈련소에 입소할 당시 몸무게는 다시 118kg으로 늘고 말았다.

신 상병이 다시 체중감량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은 훈련소에 입소하고부터. 신 상병은 과제 중 병사만으로 구성된 '비만소

인터뷰 제2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임경순 단장

"자긍심 가지고 발로 뛰면서 단장 역할에 최선을"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2기 단장에 선출된 임경순 단장(사진)은 "너무 큰 직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단장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발로 뛰면서 단장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임 단장은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주부명예기자단 활성화와 함께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부를 밝히기도 했다.

주부명예기자단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활동이 미흡했지만 기사 발굴 및 포천신문사에 기사제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주부명예기자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부활성화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제2기 주부명예기자단의 중점 운영방안에 대해 포천신문사와 주부명예기자단 임원 및 지부장의 3박자가 잘 맞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3박자가 잘 맞도록 조율하는 것이 단장 역할이라고 밝히고 취임 후 지부단위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부단위 모임은 회의중심보다는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부명예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부명예기자들이 사회현상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천신문사 기자들의 취재현장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부명예기자단 활성화 방안인데 대해 임 단장은 "친목도모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취임 후 먼저 각 지부장을 만나 친목도모 방안을 모색하고 식사위주의 모임에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단장은 "주부명예기자들이 직접 취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신문사 차원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2000년부터 포천자

혜원 노인들에게 목욕봉사 활동을 비롯한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포사모(포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사회봉사 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상륙회 초대 회장, 민들레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임 단장은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병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저도 노후에 건강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되기 때문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해 본다"고 말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고 뿌듯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한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다보면 내 대에서 못 받으면 후손들이 덕을 본다고 생각한다"는 봉사관을 가지고 있다.

임 단장이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남편과 자녀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임 단장은 "주부명예기자들이 직접 취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신문사 차원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2000년부터 포천자

포천의 희망! 젊은청년들의 행동

제2회 학생주체 포천순례대행진

지난해에 이어 포천사람시민연대(회장 윤민규)와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은 제2회 학생주체 포천순례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천을 순례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는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코자 계획했다.

이번 순례는 잠맛비가 쏟아진 지난 1일부터 학생 및 일반인 50여명이 참가해 지난 5일까지 이어졌다.

지난 1일 참가자들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출발식을 갖고 ▶관인면 중리초 ▶관인면 관인초 ▶화현면 지현초 ▶군내면 청성초 ▶군내면 직두리 농촌체험 ▶포천종합고등학교까지 4박 5일간 대장정을 마쳤다.



제2회 학생주체 포천순례대행진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가운데 행군 첫날 순례단이 청수면과 관인면 점령지를 순례하고 있다.(원인은 지효섭 행사단장)

행사단장인 지효섭 군(한국외국어대학교·2년)은 "지난해 평 대원에서 올해는 행사단장으로 참가해 감회가 새롭다"며 "교통통제 등 남

"지속적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 선도"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단합행사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는 지난 2일 이동면 약사계곡 물동이 유원지에서 새마을 읍면동회장 연석회의 및 새마을회회장단 임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윤국 포천시시장, 홍성훈 포천시지회의장, 강태선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장이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회장 및 각 읍·면·동 새마을읍면동회장 연석회의 및 새마을회회장단 임원 단합대회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 읍·면·동 회장 연석회의를 사전에 개최하고 오전 11시부터 새마을회장과 임원 단합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마을지회 하반기 행사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일일별로 살펴보면 ▶9월 수련대회 ▶11월4일~5일 불우이웃돕기 ▶11월경 학생새마을봉사대 대대적 ▶추석전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과 새마을회관 건립, 단합

대회 등 친목행사 개최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태선 지회장은 "독거노인 김장 담그어주기, 목욕봉사, 소년·소녀가장돕기, 사랑의 쌀 모으기 등 새마을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새마을지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협배 기자 94spice@hanmail.net